



2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방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음 3월 11일) 제2509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농촌 일손부족 해법찾는다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수급 상황 모니터링 농촌고용인력센터 확대... 신규 영농작업반 지원 방문비자 외국인 농번기 한시 계절근로 허용 등

전북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에 6억원을 투자해 기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는 등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과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외국인 인력수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상철 농업인단체 연합회장 및 도 간부들과 함께 도청 농업정책과(13층)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현황을 듣고 본격적으로 농업인력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은 농축수산물공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농업인력 지원 전담 조직으로서, 농업인력 수급 지원 시책 발굴·시행,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도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할 계획으로 영농철이 끝나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 및 여성농가의 과수·채소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난해 14개소에서 올해 28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억원을 지원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 신규 영농작업반을 구성·운영한다. 신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는 센터에는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구인농가에는 실습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 영농작업반은 경기침체로 취업난에 빠진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일자리를 연계한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민간인력사무소도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에 참여시 교통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에서 법무부에 건의한 방문비자(F-1) 외국인(2,322명)에 대한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고용

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 도내 체류 외국인(8,983명)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로 전환 유도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 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5개소, 지역농협 70개소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 기관을 활용한 경운과 정비, 이랑, 파복, 파종 등 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군의 농기계 임대료를 기존 대비 50%를 인하한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범도민 농촌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촌인력 컨트롤 타워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도, 시군에 본격적으로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인천공항 도민 해외입국자 전용 안내부스 운영

2일 인천공항에 설치된 도내 해외입국자 전용 안내부스에서 전북도청 직원들이 도내 입국자들을 맞이하며 이송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도내 이송수단을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향하는 공항 버스로 단일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대 스페인 유학생 코로나 '양성'... 전북 15번째 확진자

프랑스 거쳐 인천공항 입국 보건당국 통제... 역학조사 진행

프랑스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전북으로 온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2일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페인 유학생 A(23·전주)씨가 이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스페인 유학생

인 A씨와의 특별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입국 직후부터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았다.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전용 버스와 KTX 전용칸, 전용 택시를 이용해 전주 자택으로 왔다. 이동 과정에서도 KF94 마스크를 착용했고,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택

'e학습터·ebs온라인 클래스' 초·중·고 학습공백 메꾸자

전북교육청, 원격수업 세부운영 기준 마련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복e스쿨을 통해 운영하는 'e학습터'에서, 고등학생은 'ebs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 접속해 시청하면 된다. 4월 2일 현재 전복e스쿨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은 151,299명(103.36%), 교원은 10,590명(89.51%)이다. 또 학급 개설수는 15,038학급으로 오프라인 대비 208.62%다. 단, 전복e스쿨은 초·중·고교 기준이다. 원격수업이란 등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수업 형태로, 그 유형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등이 있다. 첫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한다. 둘째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출석 수업 단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며 1시간 수업량 및 수업시수를 감축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은 보충한다. 중학교 수업량의 예를 들어 보면 준비시간 5분, 콘텐츠 10분, 학생 활동시간 20분, 교사 피드백 시간 10분 등 총 45분이다.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명이라도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못하지만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시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 대여 등 전북교육청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수업을 듣는 건 어렵지 않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혼자 수업 시간에 맞춰 접속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